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8~1/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2	부처님의마지막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7	통도사승가대학의불교철학강의:서양철학교수가통도사에간까닭은	홍창성	운주사
3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4	중의학이론과도가역경:인체는작은우주다	남회근	마하연	9	무비스님신금강경강의(어플경전강의01)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5	죽음을철학하는시간(죽음명상)	이일야	불교신문사	10	수구즉득다라니: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	불공금강/석법성	운주사

책세상

살아있는 군법사 대부의 '군포교' 회고록



군법사의 길
김덕수 지음
동쪽나라 펴냄
1만6천원



현재 충남 논산 불이선원(不二禪院)에서 주석하며 수행 중인 저자는 군 불교 포교의 살아있는 증인이며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처음 28사단에 전입해 각 처부를 돌며 인사할 때는 해당 부처의 참모가 기독교 신자일 경우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내곤 했다. 어떤 야비하고 못된 참모는 바로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 참 드러워서. 말세는 말세구나. 빌어 처먹을 중놈의 새끼가 장교 계급장을 달고 군종참모로 오는 세상이라니……."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욕을 했다. 내가 떠난 뒤에 그런 말을 했다면 몰라도 바로 앞에서 들으라는 듯 그렇게 투덜대니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군종병과 사상 처음으로 진급대상자 중 1차년도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일이 일어났다. 아직도 군종병과에서 1차년도에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 주인공은 김덕수 법사(재원스님)이다. 최근 김 법사가 그동안 군포교에 몸담으며 겪었던 애환과 보람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펴냈다. 이 회고록은 한국의 군종장교 그 중에서도 군법사들이 군대라는 특수한 포교현장서 겪었던 눈물겨운 도전의 생생한 역사를 그리고 있다. 저자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뒤에도 재원 스님으로 탈바꿈해 불교의 생활화와 일상 속 불교화를 꾸준히 주도해왔다. 한국 불교계 최초로 육군 군종감을 역임한 저자는 14세에 출가해 당대 최고의 학승들로부터 경전을 공부한 승려였다. 저자는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육군 군법사 2기로 임관해 군포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저자가 군법사가 되어 6군단에 배치되었던 1968년 무렵, 육해공군 부대에는 이미 500명의 군목과 군신부가 군종장교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군법사는 1기 5명, 2기 7명이 전부였다. 이처럼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인 것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경우 해방 이후부터 정부와 군당국이 군목, 군신부를 각급 부대에 적극적으로 배치한 데 비해 불교의 군법사는 아예 군종장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 후 1960년대 후반에야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군종장교에 군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타종교인 및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러다가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할 무렵 베트남 당국자들이 한국의 군법사를 베트남으로 파견해달라며 강력히 요구한 게 군법사를 배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20명 이내에서 군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그 자격 조건으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덕법계 이상의 승려'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런 자격을 갖춘 군법사 1기생 5명에 이어 2기생 7명이 발탁되어 일선 부대로 파견될 수 있었다. 저자가 처음 육군 중위로 임관되어 6군단 사령부에 배치되었을 때는 아예 '군법사'라는 개념도 없었고 당연히 군법사가 일할 사무실조차 없었다. 그래서 6군단 영내에 있던 교회로 출퇴근하며 기독교인 장병들의 예배활동을 집계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했던 게 당시의 실정이었다. 이런 열악하고 불교에 편파적인 환경 속에서도 저자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치며 다방면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군부대 최초로 법당을 창건하였다. 대부분의 군법사들이 열악하며 불교에 편파적이었던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의무연한만 채우고 전역한 것과는 달리 저자는 묵묵히 군포교의 최일선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군법사 최초로 대령으로 진급하여 군종감의 지위에 올랐으며 그런 노력 덕분에 그토록 열악했던 군포교도 어느 정도 타종교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을 통해 "나는 부처님 도량인 사찰에서 수행하며 대학을 졸업했고, 초창기 군법사로 종군하여 25년간 전후방에 발령받은 각 부대마다 군법당을 창건해 장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파했다"며 "내가 동진출가 후 경험했던 산사의 승가 생활도, 군법사의 전법생활도, 전역 후의 생활불교운동도 모두 큰 보람이요 즐거움 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저자는 "나의 인생은 오롯이 부처님을 향한 것이었으니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다. 내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졌다. 부처님은 기도하고 발원하면 다 이루어 주셨다. 일체의 장애와 시련,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내가 소망하고 뜻하는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뤄졌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여의주가 빛나며 내안에도 여의주가 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길 바란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력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덧붙였다.

군포교서 겪은 눈물겨운 도전과 역사
한국 불교계서 최초로 군종감 역임해
전역후엔 불교의 생활화 운동 전개해

이 책은 저자가 80여 년간의 수행 이야기들중 주로 군법사로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담았다. 일생의 반 이상을 군승법사가 되어 이 땅의 청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고심하며 생애의 중요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출가절벽의 시대 군법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점점 어려운 군승 수급의 시기로 치닫고 있는 이 때, 이 책은 현재 군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현역 군법사들은 물론 군법사를 꿈꾸는 예비 군승들에게도 희망의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김덕수 법사는?

1945년 강원도 강릉서 태어나 14세 때 강릉 법왕사에 청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 뒤 운허 · 탄허 · 용성 스님 등 당대 고승들로부터 경전을 익혔으며, 1968년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후 조계사서 수행하던 중 1969년 제2기 군승법사로서 중위로 임관해 6군단 사령부, 월남 십자성 부대, 부산 군수사령부, 김해 공병학교, 계룡대 등 여러 부대의 군법사로 임무를 다하며 군불교 포교에 매진했다. 또한 새로 전입한 부대마다 불이사(不二寺) 불광사(佛光寺) 금련사(金蓮寺) 등 사찰을 창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국에 360여 개에 이르는 군법당을 창건하는 데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해 관할 부대와 지역의 불교 포교의 근본도량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1985년에는 불교계 최초로 육군 대령으로 진급하여 군사령부 군종참모, 육군 차감, 국방부 군종실장, 군종감을 역임했다. 1993년 4월, 명예 전역 후에는 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60여 분원 사찰과 200여 제자를 양성해 전국적으로 불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육군 법요집〉 〈국군 법요집〉 〈군인정신의 샘〉 〈자아발견〉 〈호국승병〉 등의 저술과 논문이 있다. 현재 충남 논산 불이선원(不二禪院)에서 주석하며 수행 중인 저자는 군 불교 포교의 살아있는 증인이며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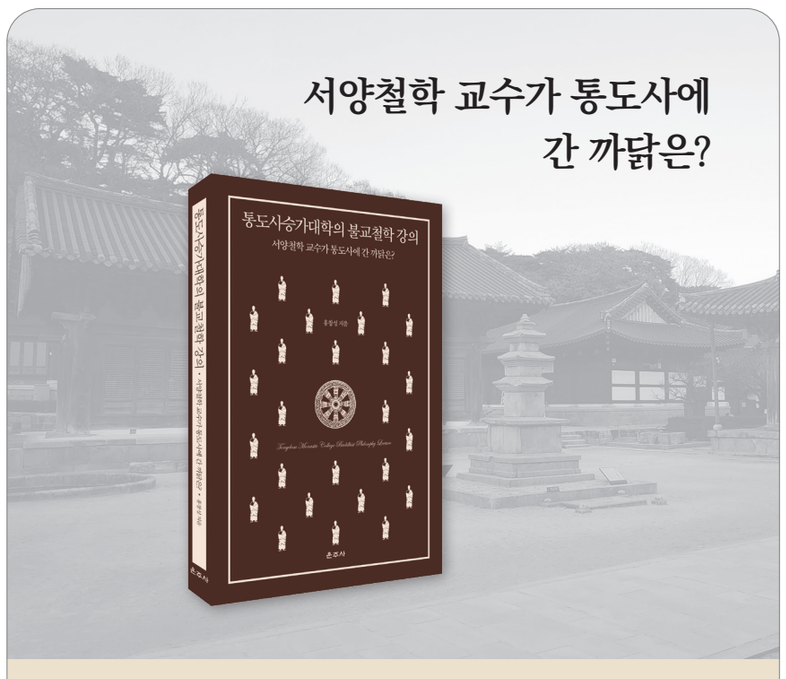
책 속의 밑줄 긋기

"우리 사령부에 군법사님이 새로 왔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지금 쓰지 않는 미군 부대 퀀셋(quonset) 막사라도 뜯어다가 김 법사님이 원하는 법당을 지어주게." 공병대장은 곧바로 지시를 수행했다. 그 결과 며칠이 안 되어 군부대 최초의 퀀셋 법당이 창건되었다.

군법사로서 아쉬웠던 점이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그 중 타종교와 비교해 가장 절실한 게 문서포교가 아닐까 한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경우 성경을 분기별로 전 장병에게 보급하는데 그 대상엔 구분이 없다. 기독교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를 믿든 무종교이든 무조건 성경을 나눠주는 식이다.

군목들은 천주교, 불교와 출자금을 똑같이 냈음에도 어떻게든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여 그런 마찰이 생겼다. 하지만 그 시절엔 군목들이 많았고 그들이 군종차감, 군종감 등 고위직에 있었으니 육군대위였던 나로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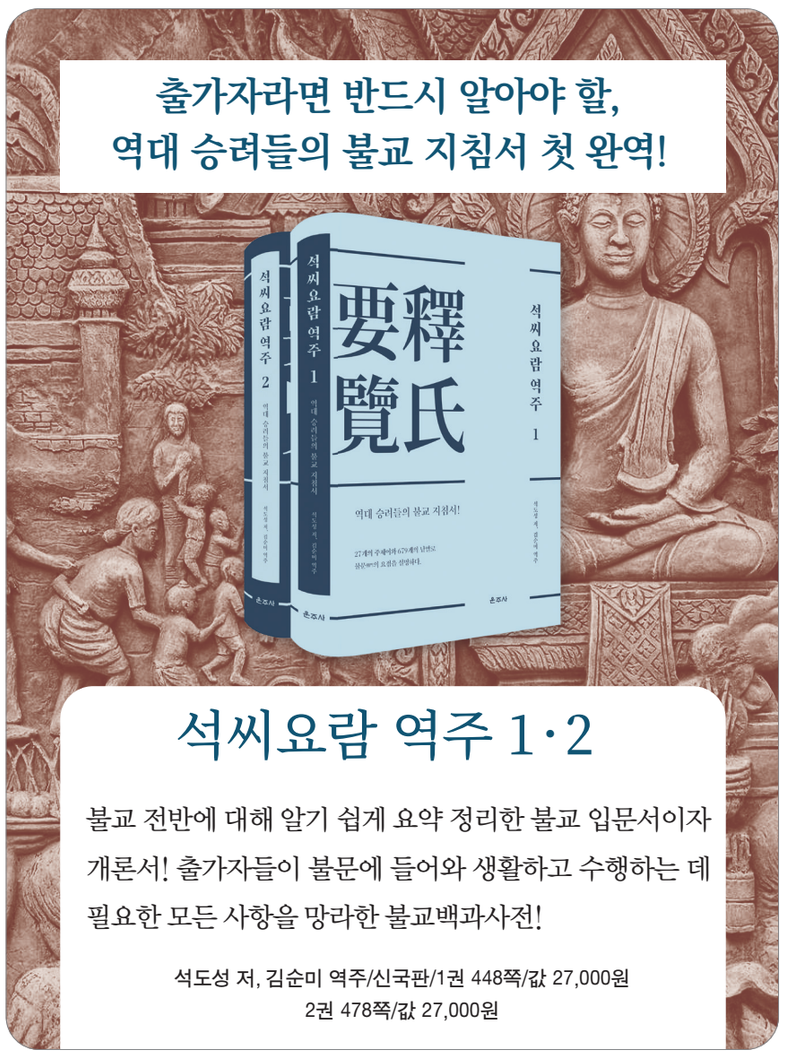
대한민국 군종병과 사상 처음으로 내가 진급대상자 중 1차년도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일이 일어났다. 아직도 군종병과에서 1차년도에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선후배들에게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 말한다. 인생이라는 것, 목숨이라는 것은 호흡지간에 달려 있다. 숨이 멈추면 인생도 끝난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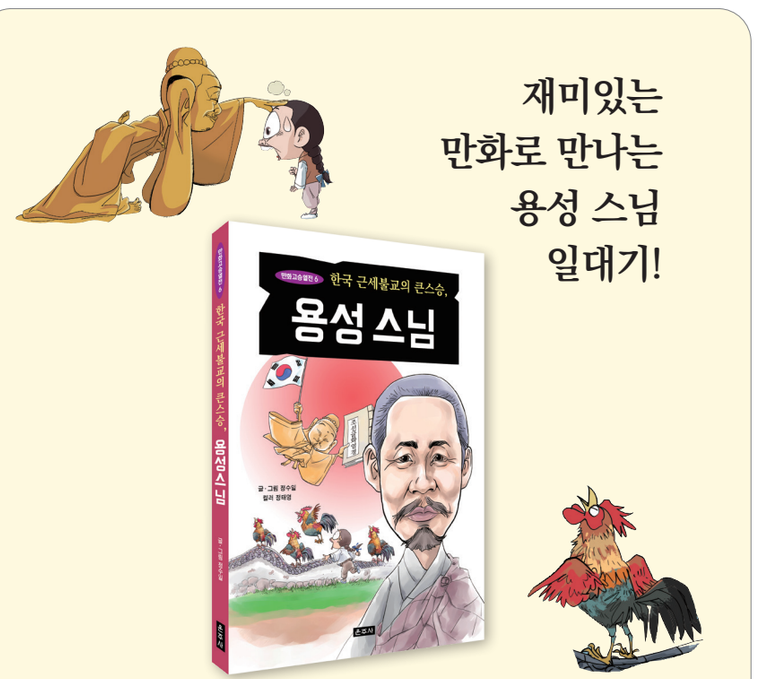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